

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 만대에 빛나리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적지향점—조국진출과 조국해방

이 땅위에 강도 일제를 격멸소망하기 위한 민족의 총성이 높이 울려다지고 거족적인 전민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력사적인 조국해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뜻깊은 조국해방 70년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적렬의 총성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민족리대 뒤흔들어놓으시고 조선인민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민항쟁력량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제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는것은 항일대전을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전략적목표였고 우리의 가슴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적이 없는 불변의 신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를 진행하신 목적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반일항쟁으로 불붙어 오르는것을 조국해방위업수행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국내에서의 혁명운동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조선혁명의 자주적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과정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습하던 항일무장투쟁의 초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태도를 이끄시고 온산지구에 진출하신것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이 더욱 장성강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1930년대 후반까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작전을 빛나는 승리에 의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오라.

당시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국내에로 진출하여 일제에게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로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민족의 운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총대로 원수의 아성에 불을 질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실 일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시었다.

주제 26(1937)년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말씀하시고있으셨던 수많은 사연을 담은 한방의 총소리가 어둠을 헤가며 조국땅 보천보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보천보의 밤하늘가에 울려 퍼진 원수적렬의 총소리!

진정 그것은 이 나라의 가장 총적한 아들딸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이 강도 북부조선의 어느 지구로 진출하는것보다 몇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해방하려는 의지를 내외에 시위한 신념의 총성이었다.

보천보전투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당시 《동아일보》와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인상적인 표제를 달고 앞을 다투어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하였다.

은 나라가 보천보전투소식으로 웅성거리었고 려운형을 비롯한 국내의 의명망들은 인사들은 보천보에까지 직접 찾아와 전투현장을 목격하고 돌아갔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질투비판과 절망에 잠겨있던 우리 인민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총대를 들고 일제와 맞서싸우면 반드시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원수적렬의 총성은 우리 조국의 북변인 온산지구에서도 울려퍼졌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대정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연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조국진출을 위한 단단의 준비를 갖춘 다음 일제의 국경경비선을 뚫고 압록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온산지구로 들어오시라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완전소멸》하였다고 떠드는 적들의 기만선전을 짓부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호기시키고 무장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보천보전투가 있는 후 적들이 이 지대에 가장 악질적인 수비부대를 증파해놓는것으로 하여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였다.

하지만 무비의 담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무찌르게 되면 북부조선의 어느 지구로 진출하는것보다 몇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확신하시었다.

온산지구로의 진군, 여기에는 조국진출의 총소리로 함경북도의 로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온 나라 인민들을 항일혁명에로 힘있게 불붙어 일으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산지구공작전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지체없이 온산지구로 넘어가 국내진출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주제 28(1939)년 5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대를 진출시키고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진출하시었다.

적사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갑부경비도에서의 일행전리행군이 바로 온산지구공작에 있던 일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을 맞이한 온산지구인민들은 지난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들어왔다고 전해준 농들의 신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많은 수군대가 어디에 있다가 무슨 수를 써서 온산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온산지구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을 무찌르고 대흥단에서 소탕할것을 결심하시고 몸소 전투를 조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위중대와 8대대를 인출하시고 신산에서 정지사업을 마치고 후 지형상 유리한 대흥단에서 적을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동진로에 돌진해 들어가 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위중대와 8대대를 인출하시고 신산에서 정지사업을 마치고 후 지형상 유리한 대흥단에서 적을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동진로에 돌진해 들어가 싸우시었다.

신개척에서 얻어맞은 적들이 만든 7대대를 따라 추격해오리라는것을 예견하시었던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적들이 7대대의 뒤를 바짝 따르고있었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흥단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날은 주제 28(1939)년 5월 23일 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명철의 총성이 대흥단을 뒤흔들었다.

7대대의 뒤를 쫓아오는데만 정신을 팔고있던 적들은 코앞에서 날아드는 명철탄에 무너져눅음을 당하였다. 적의 증원부대에 이 죽음의 함정

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패잔병들이 극도로 당황하여 저들의 증원부대와 맞붙음을 하는 추태를 부린 이야기도 이때에 있던 일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온산지구에서 울리신 총성은 국내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력사의 메아리였고 전민을 조국해방전쟁에로 또 다시 부른 명철의 피성이였다.

함으로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시인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조국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된 전투들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의 주체적역량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민항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반일진출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자들의 드림같은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항일의 전통을 선군혁명의 영원한 괴물기로 이어놓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기고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명단령도따라 오우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전진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시인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원수적렬의 총성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시인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원수적렬의 총성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시인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간악한 일제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원들과 함께 사상신에 오르시었다. 사상신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인민무장대의 책임자와 당조직책임자를 반갑게 만나주시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지난 기간 투쟁성과에 대하여 치하하신 후 사상신은 라진일대를 무감하는 전당대와 같다고, 함으로 좋은 위치에 묘하게 들어앉은 훌륭한 전당대이 라고 하시며 한동안 주변을 부감하시었다.

이윽고 가파로운 벼랑길을 따라 비밀전락소로 내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밀전락소를 잘 챙겼다고 하시면서 바위에 오르시어 지형을 구체적으로 료하시었다.

그러시고서는 최후결전시기 인민무장대가 라진해방전투를 어떻게 벌리겠는가를 의논해보자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라진항을 승리 부세하여 위한 작전을 대담하고 주도세밀하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서는 라진해방전투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고, 이 작전을 성과적으로 벌리는것은 전민적인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것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작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담한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인 라진해방전투계획에 따라 라진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지하혁명조직들은 최후공격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들과 긴밀한 연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크기를 해방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함으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의 원수적렬을 넘고 헤쳐시어 전제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에로 힘있게 불붙어오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은 사상신혁명전적지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사상신에 빛날전 천리혜안의 예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인 라진해방전투계획에 따라 라진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지하혁명조직들은 최후공격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들과 긴밀한 연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크기를 해방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함으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의 원수적렬을 넘고 헤쳐시어 전제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에로 힘있게 불붙어오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은 사상신혁명전적지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이 땅위에 강도 일제를 격멸소망하기 위한 민족의 총성이 높이 울려다지고 거족적인 전민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력사적인 조국해방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뜻깊은 조국해방 70년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적렬의 총성으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기반을 민족리대 뒤흔들어놓으시고 조선인민혁명군과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민항쟁력량의 총동원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제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며 조국해방을 이룩하려는것은 항일대전을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해온 전략적목표였고 우리의 가슴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본적이 없는 불변의 신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를 진행하신 목적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반일항쟁으로 불붙어 오르는것을 조국해방위업수행의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국내에서의 혁명운동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조선혁명의 자주적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과정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우습하던 항일무장투쟁의 초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태도를 이끄시고 온산지구에 진출하신것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시작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항일무장투쟁이 더욱 장성강화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1930년대 후반까지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작전을 빛나는 승리에 의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오라.

당시 조성된 정세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국내에로 진출하여 일제에게 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줄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로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민족의 운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총대로 원수의 아성에 불을 질러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실 일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시었다.

주제 26(1937)년 6월 4일 밤 10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말씀하시고있으셨던 수많은 사연을 담은 한방의 총소리가 어둠을 헤가며 조국땅 보천보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보천보의 밤하늘가에 울려 퍼진 원수적렬의 총소리!

진정 그것은 이 나라의 가장 총적한 아들딸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이 강도 북부조선의 어느 지구로 진출하는것보다 몇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해방하려는 의지를 내외에 시위한 신념의 총성이었다.

보천보전투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준 충격은 참으로 컸다. 당시 《동아일보》와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인상적인 표제를 달고 앞을 다투어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하였다.

은 나라가 보천보전투소식으로 웅성거리었고 려운형을 비롯한 국내의 의명망들은 인사들은 보천보에까지 직접 찾아와 전투현장을 목격하고 돌아갔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질투비판과 절망에 잠겨있던 우리 인민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총대를 들고 일제와 맞서싸우면 반드시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었다.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원수적렬의 총성은 우리 조국의 북변인 온산지구에서도 울려퍼졌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대정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에서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연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우리는 조국진출을 위한 단단의 준비를 갖춘 다음 일제의 국경경비선을 뚫고 압록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온산지구로 들어오시라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완전소멸》하였다고 떠드는 적들의 기만선전을 짓부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해방의 서광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 호기시키고 무장투쟁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보천보전투가 있는 후 적들이 이 지대에 가장 악질적인 수비부대를 증파해놓는것으로 하여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출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였다.

하지만 무비의 담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지구에 진출하여 적들을 무찌르게 되면 북부조선의 어느 지구로 진출하는것보다 몇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확신하시었다.

온산지구로의 진군, 여기에는 조국진출의 총소리로 함경북도의 로동자,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온 나라 인민들을 항일혁명에로 힘있게 불붙어 일으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온산지구공작전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지체없이 온산지구로 넘어가 국내진출작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주제 28(1939)년 5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대를 진출시키고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진출하시었다.

적사들이 이미 널리 알려진 갑부경비도에서의 일행전리행군이 바로 온산지구공작에 있던 일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을 맞이한 온산지구인민들은 지난 겨울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들어왔다고 전해준 농들의 신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많은 수군대가 어디에 있다가 무슨 수를 써서 온산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온산지구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을 무찌르고 대흥단에서 소탕할것을 결심하시고 몸소 전투를 조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위중대와 8대대를 인출하시고 신산에서 정지사업을 마치고 후 지형상 유리한 대흥단에서 적을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동진로에 돌진해 들어가 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위중대와 8대대를 인출하시고 신산에서 정지사업을 마치고 후 지형상 유리한 대흥단에서 적을 소멸할것을 결심하시고 동진로에 돌진해 들어가 싸우시었다.

신개척에서 얻어맞은 적들이 만든 7대대를 따라 추격해오리라는것을 예견하시었던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적들이 7대대의 뒤를 바짝 따르고있었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흥단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날은 주제 28(1939)년 5월 23일 일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자 명철의 총성이 대흥단을 뒤흔들었다.

7대대의 뒤를 쫓아오는데만 정신을 팔고있던 적들은 코앞에서 날아드는 명철탄에 무너져눅음을 당하였다. 적의 증원부대에 이 죽음의 함정

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패잔병들이 극도로 당황하여 저들의 증원부대와 맞붙음을 하는 추태를 부린 이야기도 이때에 있던 일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온산지구에서 울리신 총성은 국내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력사의 메아리였고 전민을 조국해방전쟁에로 또 다시 부른 명철의 피성이였다.

함으로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시인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과 조국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진행된 전투들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의 주체적역량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민항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며 반일진출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자들의 드림같은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항일의 전통을 선군혁명의 영원한 괴물기로 이어놓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기고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명단령도따라 오우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전진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시인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원수적렬의 총성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시인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원수적렬의 총성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시인 주체혁명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간악한 일제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원들과 함께 사상신에 오르시었다. 사상신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인민무장대의 책임자와 당조직책임자를 반갑게 만나주시인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지난 기간 투쟁성과에 대하여 치하하신 후 사상신은 라진일대를 무감하는 전당대와 같다고, 함으로 좋은 위치에 묘하게 들어앉은 훌륭한 전당대이 라고 하시며 한동안 주변을 부감하시었다.

이윽고 가파로운 벼랑길을 따라 비밀전락소로 내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밀전락소를 잘 챙겼다고 하시면서 바위에 오르시어 지형을 구체적으로 료하시었다.

그러시고서는 최후결전시기 인민무장대가 라진해방전투를 어떻게 벌리겠는가를 의논해보자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의에서 라진항을 승리 부세하여 위한 작전을 대담하고 주도세밀하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서는 라진해방전투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고, 이 작전을 성과적으로 벌리는것은 전민적인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것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작전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담한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인 라진해방전투계획에 따라 라진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지하혁명조직들은 최후공격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들과 긴밀한 연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크기를 해방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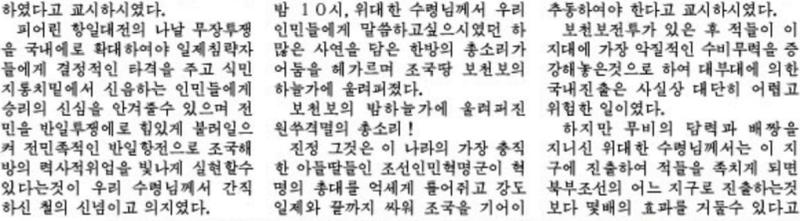
함으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의 원수적렬을 넘고 헤쳐시어 전제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에로 힘있게 불붙어오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은 사상신혁명전적지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시인 라진해방전투계획에 따라 라진인민무장대를 비롯한 지하혁명조직들은 최후공격전시기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들과 긴밀한 연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공세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크기를 해방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

함으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의 원수적렬을 넘고 헤쳐시어 전제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에로 힘있게 불붙어오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은 사상신혁명전적지와 더불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부전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부전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네네를란드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 알리시우승 하네스 아드리야누스 엠브레흐츠

주조 네네를란드왕국 특명전권대사가 18일 만수대의 사랑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경성 외무성 부상과 네네를란드대사관 성원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임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년을 맞으며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8일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녀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찬란한 인민이 당장전 일본놈을 승리자의 대

혁명의 사명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한 항일혁명투쟁의 투철한 수호정신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원수적렬을 없애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답사과정에서 혁명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귀중히 여기며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백두의 혁명정신을 언제나 이어나가는 선군시대 녀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고상한 품도를 남김없이 보여 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이에 대해 생각할 때면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몇몇 선군자 투사들의 힘만으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없다는것은 우리 조국 반일민족해방운동사의 교훈이였다. 우리는 항일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시종일관 전민항쟁을 주장하였다고 하신 교시의 구절구절을 가슴뜨겁게 되새긴다.

돌이켜보면 조국해방은 20상상을 넘어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일제 전제 조선인민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과였다.

우리 혁명의 주체적역량을 튼튼히 축성하여 전민항쟁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사명을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보천보전투가 있는 후 그이께서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전제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드려하신 9월호소문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는 9월호소문에서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들 중심으로 전민항쟁준비를 확대해나가는것을 전략적방침으로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전민적복기와 배후연락작전을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속에 결합시킬 원대한

전민항쟁으로 부른 9월호소문

이 심화되고 일본군의 전과가 확대되어가자 조선혁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았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정정 군사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고 중일전쟁은 우리 인민의 독립전쟁에 걸맞지 않거나 밝은 전망을 열어주었다고, 다시말해서 목적달성의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고, 따라서 우리는 일제와 결사전을 벌릴수 있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쳐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전제 조선동포들에게 전민항쟁으로 부르는 9월호소문을 보내도록 하시고 전민항쟁준비의 전략적방도를 밝혀주시었다.

9월호소문에는 우리는 이보다 더 유리한 기회가 있을수 없기때문에 일단 유사시에 가장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후방에서 무장폭동과

조국해방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정

조국해방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정 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를 조직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는 자기 조직의 선원들을 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여 군사공작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민적인 항쟁시대를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

조국해방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정 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를 조직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는 자기 조직의 선원들을 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여 군사공작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민적인 항쟁시대를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

조국해방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정

조국해방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정 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를 조직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는 자기 조직의 선원들을 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여 군사공작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민적인 항쟁시대를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

조국해방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정 조직으로서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를 조직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독립대는 자기 조직의 선원들을 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키며 후방에서 파괴공작을 조직하여 군사공작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소들을 방화 및 파괴하며... 전민적인 항쟁시대를 도래할 때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에 합세해야 한다. 그럼

전국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년을 맞으며 전국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8일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농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찬란한 인민이 당장전 일본놈을 승리자의 대

주체소를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면서 답사자들은 보천보의 밤하늘에 승리의 총성을 높이 울리시어 일제의 발발담에 신음하던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을 깊이 체득하였다.

리명수혁명사적지에서 그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정신을 어떻게 견결히 이어지고있는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청송읍에서, 강창읍에서 들은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에 참전도 생명이 다 바친 항일혁명선원들이 지녔던 강철같은 규율과 알찬 무대배려량들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삼지연대기념비의 부주제군상들, 삼지연못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한

전국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5년을 맞으며 전국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8일 해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보천보전투승리 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농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찬란한 인민이 당장전 일본놈을 승리자의 대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투사들이 발휘하였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뜨겁게 절감하였다.

오늘도 절세위인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전설처럼 전하고있는 갑부경비도전투승리기념탑을 둘러싸고 있는 백두산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원수적렬을 없애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답사과정에서 혁명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귀중히 여기며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진행해나감으로써 백두의 혁명정신을 언제나 이어나가는 선군시대 녀성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고상한 품도를 남김없이 보여 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그는 오늘도 포연서린 군복을 벗지 않았다

인민대학습당 평안북도위탁번역관리소 번역원인 박옥기전쟁로병의 28년간 번역일지를 펼쳐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쟁로병들은 불타는 전호가에서 최고사령부들 그리며 혁명가를 부르던 그때처럼 로심을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며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 끓기 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불타는 전호

번역은 어려운 지적활동의 하나이다. 특히 최신과학기술문헌에 대한 번역사업은 높은 외국어실력과 함께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깊고도 풍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 그것은 대학에서 기술공학을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부문에서 일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 스스로 선택한 이 어려운 전투앞에서 박옥기로병은 전호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사신을 해치던 그 정신이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로병은 생각했다.

그는 번역에 필요한 기술용어 하나를 찾아 매달리다 그와 관련된 10개, 20개의 단어를 같이 찾아 학습하는 원칙을 세웠다. 매일 일정한 수백개의 기술용어들이 번역일지의 폐지들을 찍 새겼다.

어느날 박옥기로병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에서 일하는 과학기술강의소식을 받게 되었다. 그는 남편에게 평양에서 인민대학습당강의에 참가해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까지 해야겠소? 내가 가져다준 기술서적들도 있는데...》

그의 책상우에는 대학교원인 남편이 애써 구해준 전자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서적들이 주렁주렁 늘어있었다. 너무 바빠볼건 그 책을 매만지던 그는 말했다.

《이 책들도 좋지만 강의도 꼭

28년간 묵묵히 걸어온 위훈의 행적을 전하는 수십권의 번역일지가 있다.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병사의 그 열정, 그 보복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의 전투행로를 뜻깊이 이어가 83살의 녀성전쟁로병인 역인.

그의 삶은 조신의 로병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정신이 얼마나 고결하고 굳건한가를 보여주는 선 화폭이다.

들어왔어요

그는 집살림을 남편에게 떠맡기고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는 한해에도 몇차례씩 집을 떠났다.

우리 말표현들과 어휘들도 번역일지에 덧붙여 써둘 때가 많았다. 그는 공화국 박옥기로병.

그가 피라는 사색과 탐구로 번역한 하나하나의 번역물들을 받을 때마다 도위탁번역관리소의 일군들은 로병의 높은 책임성과 불같은 정열에 감탄하곤 했다.

처음에는 쉬쉬쉬엄 하라고 권고하던 그들이 차츰 로병에게 다른 번역원들이 올려보낸 글들을 편지하는 일도 맡겼다. 그러면서도 한층 높은 미안함을 감수하지 못했다. 로병에게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키는것만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는 일감을 더 받을 때마다 온 얼굴이 환해지었다. 천만금을 받든들 그렇게 기뻐했었다.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것을 다 모아 하나의 문헌으로 편집하는것 역시 높은 책임성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박옥기로병은 이미 번역한것이지만 배 문장, 배 단어의 의미와 전반적내용을 결합시켜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았고 어떤 글들은 거의나 다시 번역하다싶어 했다.

낮에 밤을 이어 리용하는 기쁜 밤을 보내고 싶었다. 이하는 그날 두고 남편과 두 아이들은 가족이나 불편한 몸이 견디겠는가고 안락하게 하였다.

지난 초해방전쟁시기 박옥기

기공무가 복무한 야전병원 후송중대의 임무는 최전선에 자리잡은 야전병원에서 1차처리를 받은 부상병들을 후방병원까지 무사히 데려다주는것이였다.

크고작은 고개를 서른새개나 넘어 그곳까지 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다. 전진으로 포탄을 싣고 나왔던 운전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미세의 가슴스러운 폭격때문에 차에서 내려 환자들을 들것에 놓던채 수백리 먼길을 걸어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여름날 부상병들과 함께 산골짜기를 지나던 박옥기동무는 대기를 짙게 에워싼 금수성에 대피구멍을 내렸다. 마침 가까이 있는 좁은 흙터전에 부상병들을 모두 들어다놓았는데 적비행기가 상공에 나타났다. 적비행기는 미친듯이 내려왔더니 폭격을 가했다. 흙터전입구에 방패가 되어서 있던 그에게 파편이 날아와 손목뼈를 부스러뜨리고 심장근처에 가서 박혔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후 전우들에 의해 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나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과 뼈가 3cm나 뒹뒹 떨어진 손목, 심장근처의 파편처럼 손목 계속 괴로웠다. 하지만 그는 영예군인으로서 속을 하라는 권고를 거절했다. 가혹한 결과에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팔다리를 잃고서도 싸우는 고지를 떠나지 않은 전우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예군인행세를 한단 말인가.

한말일 손에 필기도구를 쥐고 글을 쓰느라든 보복사람도 어지간히 고통을 느끼기마련이다. 하물며 움직이기 힘든 불편한 손, 단 두손가락에 원주거를 끼워준다고 할뿐더러 손을 그 많은 번역물들을 하나하나 완성해나간 그의 높은 정신세계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턴가 그는 외국어기술용어준말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적어놓기 시작하였다.

몇해가 지나 그는 준말들이 배곡하게 들어찬 여러권의 학습장을 위탁번역관리소의 일군에게 내놓았다. 그것들 가운데

《내가 쉬는만큼 나사가 더 전진을 못하지 않겠니.》

번역원들에 대한 기술습을

진행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일군은 목이 짝 맥했다. 또 박도박 정정했 쓴 글씨, 하나의 준말에도 경우에 따르는 해설을 나르느 일도 전정의 승배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크고작은 모든 일에, 각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 사람들에게 조국의 운명이 지워져있다.

박옥기로병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로 일어와 로어기술서에 대한 번역을 해온 그가 2003년 이후부터 자습으로 중어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때는 나이가 일흔살이 넘은 때였다. 로병의 정신, 로병의 자각이 얼마나 큰 기적을 낳는가 하는 가슴뜨거운 증명이였다.

포화속을 뚫고 달리던 기세로, 조국의 운명을 안고 뚫뚫던 그날의 정신으로 번역의 끝줄을 이어오고 순간순간을 빛내여온 박옥기전정로병.

바로 그는 심장가까이 손목을 앞서 뜨겁게 마쳐오는 단련된, 화신입당의 영예를 되새겨주는 단련증은 그를 영원한 전호의 보복으로 역세계 떠미는 또 하나의 심장이였다.

전우들이 지켜본다

이제는 웅장 집에 앉아서 당과 국가의 해태이나 받아야 할 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해방전쟁을 그들 부러워하던 뒤집 손이도, 지구굴뚝머슴을 살던 덕수도 그리고 9살, 10살이 되도록 학교문제로도 가지지 못한 옥기의 두 동생도 아침이면 그와 함께 나란히 학교로 갔다. 로동자인 아버지는 공장직원이 되어 가수를 쫓고 다녔고 늘들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곤 켜져있다.

《그리 큰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있는 지식이 아까와서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로병은

《정양 8월 18일날 조선중앙통신]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친 김국향선수와 체육인들과의 상봉모임이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영춘체육상, 평양시안의 체육부부 일군들과 선수, 감독,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국향선수가 모임장소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물결이를 걸어주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체육인 김국향선수가 발언하였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체육강국건설의 지원결을 마련해주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배구의 혁명정신, 배구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든든히 준비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날 집총중앙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과 선진로동자예술선진대원의 로동열과 합동경쟁을 통해, 향토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정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날 집총중앙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과 선진로동자예술선진대원의 로동열과 합동경쟁을 통해, 향토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다. 로병은 전자 자화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교적 능률적 활용할수 있는 여러개의 외국어지식을 소구하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순수한 자기 하나만의 지식이 아니였기때문에 더구나 그러했다고 로병은 이야기했다.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지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것이고 결국은 나라의것이였지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1952년 여름 전진동무에 위치한 야전병원의 후송중대에서 복무하던 그는 불시에 제대명령을 받았다. 전쟁전에 대학생이었던 전투원들을 다시 소환하여 대학으로 보내는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던것이였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우들을 떠나겠는가 하는 그에게 야전병원의 일군은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에게 총을 펜으로 바꿔드리라고 명명하시었소.》

로연내나는 군복차림에 폭력배상을 가하면 박옥기동무가 대학으로 가기 위해 병원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며 울었다. 그중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끼 먹어도 좋으니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울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푹 내쉬었다.

몇달후에 옥기는 소학교에 입학했다. 우리가 일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재를 꼭 공부시키고 부모들이 눈물속에 다짐했다는것을 알지 않았던 철부지 옥기는 너무 기뻐 공복뼉었다. 그후 동네방네에 밤을 굶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로 알려졌던 박옥기!

해방이 되었다. 옥기는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가는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이제 더는 학비때문에 아버지께 땅이 꺼져서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가 저고리고름에 꼬깃꼬깃 건사했다 주는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지 않아도 되었다. 해방전쟁을 그들 부러워하던 뒤집 손이도, 지구굴뚝머슴을 살던 덕수도 그리고 9살, 10살이 되도록 학교문제로도 가지지 못한 옥기의 두 동생도 아침이면 그와 함께 나란히 학교로 갔다. 로동자인 아버지는 공장직원이 되어 가수를 쫓고 다녔고 늘들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곤 켜져있다.

《그리 큰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있는 지식이 아까와서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로병은

《정양 8월 18일날 조선중앙통신]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친 김국향선수와 체육인들과의 상봉모임이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영춘체육상, 평양시안의 체육부부 일군들과 선수, 감독,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국향선수가 모임장소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물결이를 걸어주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체육인 김국향선수가 발언하였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체육강국건설의 지원결을 마련해주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배구의 혁명정신, 배구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든든히 준비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날 집총중앙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과 선진로동자예술선진대원의 로동열과 합동경쟁을 통해, 향토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이렇게 대답했다. 로병은 전자 자화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교적 능률적 활용할수 있는 여러개의 외국어지식을 소구하고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순수한 자기 하나만의 지식이 아니였기때문에 더구나 그러했다고 로병은 이야기했다.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지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것이고 결국은 나라의것이였지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1952년 여름 전진동무에 위치한 야전병원의 후송중대에서 복무하던 그는 불시에 제대명령을 받았다. 전쟁전에 대학생이었던 전투원들을 다시 소환하여 대학으로 보내는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던것이였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우들을 떠나겠는가 하는 그에게 야전병원의 일군은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에게 총을 펜으로 바꿔드리라고 명명하시었소.》

로연내나는 군복차림에 폭력배상을 가하면 박옥기동무가 대학으로 가기 위해 병원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며 울었다. 그중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끼 먹어도 좋으니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울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푹 내쉬었다.

몇달후에 옥기는 소학교에 입학했다. 우리가 일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재를 꼭 공부시키고 부모들이 눈물속에 다짐했다는것을 알지 않았던 철부지 옥기는 너무 기뻐 공복뼉었다. 그후 동네방네에 밤을 굶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로 알려졌던 박옥기!

해방이 되었다. 옥기는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가는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이제 더는 학비때문에 아버지께 땅이 꺼져서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가 저고리고름에 꼬깃꼬깃 건사했다 주는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지 않아도 되었다. 해방전쟁을 그들 부러워하던 뒤집 손이도, 지구굴뚝머슴을 살던 덕수도 그리고 9살, 10살이 되도록 학교문제로도 가지지 못한 옥기의 두 동생도 아침이면 그와 함께 나란히 학교로 갔다. 로동자인 아버지는 공장직원이 되어 가수를 쫓고 다녔고 늘들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곤 켜져있다.

《그리 큰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있는 지식이 아까와서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로병은

《정양 8월 18일날 조선중앙통신]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친 김국향선수와 체육인들과의 상봉모임이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영춘체육상, 평양시안의 체육부부 일군들과 선수, 감독,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국향선수가 모임장소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물결이를 걸어주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체육인 김국향선수가 발언하였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체육강국건설의 지원결을 마련해주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배구의 혁명정신, 배구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든든히 준비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날 집총중앙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과 선진로동자예술선진대원의 로동열과 합동경쟁을 통해, 향토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적어넣었다. 전쟁전 학습의 최우수생이었던 동상생들의 성적이 그가 도달해야 할 학습전투 목표보다 정해졌다.

해방된 조국에서 뜨겁게 고통지던 애끓는 심장을, 맑고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포부를 얹으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쫓던 그들의 룡까지, 살아있었다면 조국을 위해 바치고 또 바치었을 그들의 열망하고 참된 사랑까지 그는 자신의 어깨에, 마음에 걸머져었다.

적어넣었다.

《나의 지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것이고 결국은 나라의것이였지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1952년 여름 전진동무에 위치한 야전병원의 후송중대에서 복무하던 그는 불시에 제대명령을 받았다. 전쟁전에 대학생이었던 전투원들을 다시 소환하여 대학으로 보내는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던것이였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우들을 떠나겠는가 하는 그에게 야전병원의 일군은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에게 총을 펜으로 바꿔드리라고 명명하시었소.》

로연내나는 군복차림에 폭력배상을 가하면 박옥기동무가 대학으로 가기 위해 병원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며 울었다. 그중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끼 먹어도 좋으니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울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푹 내쉬었다.

몇달후에 옥기는 소학교에 입학했다. 우리가 일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재를 꼭 공부시키고 부모들이 눈물속에 다짐했다는것을 알지 않았던 철부지 옥기는 너무 기뻐 공복뼉었다. 그후 동네방네에 밤을 굶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로 알려졌던 박옥기!

해방이 되었다. 옥기는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가는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이제 더는 학비때문에 아버지께 땅이 꺼져서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가 저고리고름에 꼬깃꼬깃 건사했다 주는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지 않아도 되었다. 해방전쟁을 그들 부러워하던 뒤집 손이도, 지구굴뚝머슴을 살던 덕수도 그리고 9살, 10살이 되도록 학교문제로도 가지지 못한 옥기의 두 동생도 아침이면 그와 함께 나란히 학교로 갔다. 로동자인 아버지는 공장직원이 되어 가수를 쫓고 다녔고 늘들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곤 켜져있다.

《그리 큰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있는 지식이 아까와서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로병은

《정양 8월 18일날 조선중앙통신]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친 김국향선수와 체육인들과의 상봉모임이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영춘체육상, 평양시안의 체육부부 일군들과 선수, 감독,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국향선수가 모임장소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물결이를 걸어주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체육인 김국향선수가 발언하였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체육강국건설의 지원결을 마련해주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배구의 혁명정신, 배구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든든히 준비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날 집총중앙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과 선진로동자예술선진대원의 로동열과 합동경쟁을 통해, 향토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적어넣었다. 전쟁전 학습의 최우수생이었던 동상생들의 성적이 그가 도달해야 할 학습전투 목표보다 정해졌다.

해방된 조국에서 뜨겁게 고통지던 애끓는 심장을, 맑고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포부를 얹으며 배움의 나래를 활짝 쫓던 그들의 룡까지, 살아있었다면 조국을 위해 바치고 또 바치었을 그들의 열망하고 참된 사랑까지 그는 자신의 어깨에, 마음에 걸머져었다.

적어넣었다.

《나의 지식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것이고 결국은 나라의것이였지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1952년 여름 전진동무에 위치한 야전병원의 후송중대에서 복무하던 그는 불시에 제대명령을 받았다. 전쟁전에 대학생이었던 전투원들을 다시 소환하여 대학으로 보내는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던것이였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우들을 떠나겠는가 하는 그에게 야전병원의 일군은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에게 총을 펜으로 바꿔드리라고 명명하시었소.》

로연내나는 군복차림에 폭력배상을 가하면 박옥기동무가 대학으로 가기 위해 병원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을 나타내며 울었다. 그중에는 그의 아내도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하루에 한끼 먹어도 좋으니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르고 울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푹 푹 내쉬었다.

몇달후에 옥기는 소학교에 입학했다. 우리가 일하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재를 꼭 공부시키고 부모들이 눈물속에 다짐했다는것을 알지 않았던 철부지 옥기는 너무 기뻐 공복뼉었다. 그후 동네방네에 밤을 굶으며 학교에 다니는 아이로 알려졌던 박옥기!

해방이 되었다. 옥기는 학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 가는것이 무엇보다 좋았다. 이제 더는 학비때문에 아버지께 땅이 꺼져서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었고 어머니가 저고리고름에 꼬깃꼬깃 건사했다 주는 돈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지 않아도 되었다. 해방전쟁을 그들 부러워하던 뒤집 손이도, 지구굴뚝머슴을 살던 덕수도 그리고 9살, 10살이 되도록 학교문제로도 가지지 못한 옥기의 두 동생도 아침이면 그와 함께 나란히 학교로 갔다. 로동자인 아버지는 공장직원이 되어 가수를 쫓고 다녔고 늘들었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곤 켜져있다.

《그리 큰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있는 지식이 아까와서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로병은

《정양 8월 18일날 조선중앙통신]제16차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영예를 떨친 김국향선수와 체육인들과의 상봉모임이 1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김영춘체육상, 평양시안의 체육부부 일군들과 선수, 감독,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국향선수가 모임장소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물결이를 걸어주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모임에서는 인민체육인 김국향선수가 발언하였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 물에뛰어들기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체육강국건설의 지원결을 마련해주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빛나는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배구의 혁명정신, 배구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든든히 준비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건설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집단적혁신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이날 집총중앙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과 선진로동자예술선진대원의 로동열과 합동경쟁을 통해, 향토로동자예술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리다른 소개자와 보복 경제선동공연을 할 때 소개자는 무대우에서 대중과 교감한다.

그러나 배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의 돌격대원들의 위치는 수시로 변했다.

한것은 공연에 출연할 선진대원들이 결사게 일손을 다그치는 돌격대원들과 아울러 저도모르게

극악한 친미, 친일역적을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을 것이다

도발과 위협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거짓말을 반복하며 민심을 기만, 우물쭈물 피회견자에게 특동거짓말쟁이라는 딱이 찍혔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너무도 변한 사실을 놓고 강짜를 부리고있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가 《8.15 경축사》라는 제목의 《북의 도발 위협》과 《백련대결》을 부른 것으며 우리를 약탈하게 접근하는 것은 도저히 때를 듣 격이다. 도대체 도발과 위협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내외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력사에 중점을 찍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 확고한 결심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회견자는 정초부터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 확보》하게 갖추는 것이 《내외의 전제》라고 기업을 도하면서 내외와 전쟁을 공명연히 선동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북의 도발과 위협》, 《백련대결》과 《내외》를 부른 것으며 우리의 로선과 정책, 존엄을 제때를 마구 흔들고있다. 《북의 반발》이 두려워 《북인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껄이며 《국회》에서 《북인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구 부추긴 것도, 어떤 경우에도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

행》되어야 한다느니, 《전쟁을 일으키면 안된다》, 《노니 하는 호전적방향을 당당 제시하면서 좋게들을 북침전쟁도발에 내내 내내 다름이 아닌 박근혜이다. 피회견자의 당풍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비하사설, 《인권》 모략소동이 매일 같이 벌어졌다. 오늘 북남관계가 정치군사적 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로 치닫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번의 우리의 지위적인 핵억제력을 약탈하게 접근하는 뜻은 올해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력사에 중점을 찍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 확고한 결심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회견자는 정초부터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 확보》하게 갖추는 것이 《내외의 전제》라고 기업을 도하면서 내외와 전쟁을 공명연히 선동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북의 도발과 위협》, 《백련대결》과 《내외》를 부른 것으며 우리의 로선과 정책, 존엄을 제때를 마구 흔들고있다. 《북의 반발》이 두려워 《북인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껄이며 《국회》에서 《북인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구 부추긴 것도, 어떤 경우에도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

행》되어야 한다느니, 《전쟁을 일으키면 안된다》, 《노니 하는 호전적방향을 당당 제시하면서 좋게들을 북침전쟁도발에 내내 내내 다름이 아닌 박근혜이다. 피회견자의 당풍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비하사설, 《인권》 모략소동이 매일 같이 벌어졌다. 오늘 북남관계가 정치군사적 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로 치닫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번의 우리의 지위적인 핵억제력을 약탈하게 접근하는 뜻은 올해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력사에 중점을 찍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 확고한 결심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회견자는 정초부터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 확보》하게 갖추는 것이 《내외의 전제》라고 기업을 도하면서 내외와 전쟁을 공명연히 선동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북의 도발과 위협》, 《백련대결》과 《내외》를 부른 것으며 우리의 로선과 정책, 존엄을 제때를 마구 흔들고있다. 《북의 반발》이 두려워 《북인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껄이며 《국회》에서 《북인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구 부추긴 것도, 어떤 경우에도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

행》되어야 한다느니, 《전쟁을 일으키면 안된다》, 《노니 하는 호전적방향을 당당 제시하면서 좋게들을 북침전쟁도발에 내내 내내 다름이 아닌 박근혜이다. 피회견자의 당풍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비하사설, 《인권》 모략소동이 매일 같이 벌어졌다. 오늘 북남관계가 정치군사적 대결의 극한점에 이르렀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초진장상태로 치닫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번의 우리의 지위적인 핵억제력을 약탈하게 접근하는 뜻은 올해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력사에 중점을 찍고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갈 확고한 결심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회견자는 정초부터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 확보》하게 갖추는 것이 《내외의 전제》라고 기업을 도하면서 내외와 전쟁을 공명연히 선동하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북의 도발과 위협》, 《백련대결》과 《내외》를 부른 것으며 우리의 로선과 정책, 존엄을 제때를 마구 흔들고있다. 《북의 반발》이 두려워 《북인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껄이며 《국회》에서 《북인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구 부추긴 것도, 어떤 경우에도 《합동군사연습은 예정대로 진

식민지노복의 민망스러운 추태

미국은 철저히 주권장단, 장장 70년세월 미국에 의존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대가로 《영권》을 유지해온 민족반역의 무리가 바로 남조선피회견자들이다. 이번 피회견자가 8.15를 맞으며 무슨 연설을 하려 했다면 그것은 용담 지난 70년간 미국의 식민지주주조 장엄을 부지하면서 민족을 망신시키고 북남관계에 심화시킨 그들의 엄청난 죄악에 대해 사죄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었다.

일본은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군국주의 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투쟁 전개

조국해방 70년을 계기로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의 과거 죄행을 단죄하며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집회와 시위투쟁이 전개되었다.

15일 남조선의 대학생연합, 우리 두레 실업단체를 비롯한 단세속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가 없는 일본 수상의 《전후 70주년대회》와 일본의 제무장평화를 성토했다.

그들은 전범국가 일본이 미국의 비호아래 군국주의로 회귀하며 제무장을 서두르고있다

그들은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의 군사적결과의 강화는 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은 우리 민족앞에 전심으로 사죄하고 과거청산을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대학생 민족주수선언문이 낭독되었다.

한편 이날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들어라! 아베는 〈한〉으로 식민주의,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군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식민지 지배사죄없는 제무장을 중단하라.》, 《침략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일본수상의 담화내용이 적혀있는 대형프랑카드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거운을 고조시켰다.

청와대안방에서 풍겨나온 북침화악내

남조선피회견자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될 첫날부터 동족대결과 전쟁열을 앞장서 고취하였다. 17일 청와대에서 출격들을 모아놓고 《을지국무회의》라는것을 빌린 박근혜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어대며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나, 《통합적위대응태세의 강화》나 뭐니 하는 전쟁포선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전시상황을 가장》하여 행정기관과 민간인까지 참가하는 연습을 강도높이 벌일대 대대 도발했다. 그야말로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도발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치타두른 호전파의 골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회견자가 제 소장에서 《국무회의》나 뭐니 하는 전쟁포선의 모의를 벌여놓고 우리를 악의에 차서 접근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선고를 편드는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거리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이 땅에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앞장서서 몰아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 평화환경이 마련되어 북남관계가 획기적국면이 열리기를 기대하고있다. 우리가 년초부터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에서 대 전환, 대번혁을 가져오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과 중대조치를 련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외히 침해하고 긴장상태. 바로 조선반도의 평화환경을 파괴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미국과 남조선피회견들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피회견자들이 벌여놓고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 내용이 있어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협천만 한 현세대공적연습이다. 여기에는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만여명의 남조선피회견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부대와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있다. 이 전쟁연습이 북침을 위한 실전으로 변질될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있는 조선반도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것은 곧 선전포고나 같다는데 대하여 충고를 제기시키고 미국과 남

미군철수와 조선반도평화통일을 주장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15일 서울 봉산에서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강령 미제침략군의 반전조실현행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군이 봉산미군기지에서 유독성물질을 한강에 내다버리고 반전조실현을 하는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살상될수 있는 반전조실현이 불법적으로 감행되자도 남조선당국이 어떠한 진상조사도 책임자처벌도 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통산미군기지를 퇴축하는것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자주권을 되찾는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미군철수와 조선반도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미8군사령부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제일열에 후방침을 한역적

피회견자가 제주역을 짓을 또 하였다. 그 무슨 《8.15 경축사》라는데서 비무장지대 《영화공원》 조성이니, 철도와 도로연결이니, 《의산가족》 상봉이니 하고 요사를 떨어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것이다.

북남관계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한 지금 박근혜가 조종할 차는 적으로 놓아두고 박근혜의 후배가 파멸시킨 기만적 극치라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제 얼굴에 침 뱉는 어리석은 바보짓이 아니라 박근혜가 조종하고 고아대며 돌아서야 조소와 망신밖에 당할것이 없다.

피회견자가 철도와 도로연결에 대해 떠들고 자기의 반공일적범죄행위를 드러내는 꼴이다.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북남사이에는 끊어진 철도와 도로는 물론 하철길, 배길도 이어지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그런데 박근혜의 우리 거버가 주주주조의 열망을 안고 서로 오가던 그 길을 다시 가로막는 반공일적극이 누구인가, 대결의 골목품인 《5.24 조치》를 불고 북남협력사업을 갖는 구실을 붙여 사사건건 파탄시킨 박근혜는 애당초 《교류》와 《협력》에 대해 입을 벌릴 포클란 한 자락도 없었다.

이제 와서 박근혜가 구어려 철도와 도로연결이니 뭐니 하고 힘들게 위태릴 필요도 없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는 북남사이의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방도가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북과

미친 악녀의 간악한 험담질

박근혜의 이번 《8.15 경축사》라는것이 전부 자기의 대결포선을 가리우고 동족을 모함하는 계수작들로 가득차있던 특이 그 무슨 《수정강령》이니, 《주변불안》이니 하는것이야말로 대결정신장치의 거대한 첫날밤이다. 피회견자가 이번 터무니없는 망발을 해지며 우리를 접근해오는 모략과 남조선 친민군의 입성단계를 해치고 끝을 배진 《세계평화》의 개국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자의 거만한 말기증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이 패전 창조지주령으로 남의 집대문 흥분하는 말이 있었다. 인민들의 대상으로 만 가지였던 단합과 대응으로 화하였다. 그 때문에 피회견자가 도리어 우리에게 악담질을 하며 무너없는 힘을 쇠였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자인가.

남조선사회를 사탕 맛살 인간생지옥으로 최악의 인민불복으로 만든 박근혜가 제 집안팎을 못 본척 하면서 세상이 평평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악의에 차서 비방수사의 모자를 씌워 무지막하게 탄압

미군철수와 조선반도평화통일을 주장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이 15일 서울 봉산에서 집회를 가지고 남조선강령 미제침략군의 반전조실현행동을 규탄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미군이 봉산미군기지에서 유독성물질을 한강에 내다버리고 반전조실현을 하는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살상될수 있는 반전조실현이 불법적으로 감행되자도 남조선당국이 어떠한 진상조사도 책임자처벌도 할수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그들은 개탄하였다.

통산미군기지를 퇴축하는것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자주권을 되찾는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미군철수와 조선반도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미8군사령부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일본의 과거 죄악을 단죄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투쟁 전개

조국해방 70년을 계기로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의 과거 죄행을 단죄하며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집회와 시위투쟁이 전개되었다.

15일 남조선의 대학생연합, 우리 두레 실업단체를 비롯한 단세속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가 없는 일본 수상의 《전후 70주년대회》와 일본의 제무장평화를 성토했다.

그들은 전범국가 일본이 미국의 비호아래 군국주의로 회귀하며 제무장을 서두르고있다

그들은 미국, 일본, 남조선 사이의 군사적결과의 강화는 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조선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은 우리 민족앞에 전심으로 사죄하고 과거청산을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대학생 민족주수선언문이 낭독되었다.

한편 이날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들어라! 아베는 〈한〉으로 식민주의,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군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식민지 지배사죄없는 제무장을 중단하라.》, 《침략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일본수상의 담화내용이 적혀있는 대형프랑카드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거운을 고조시켰다.

단자군불법반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행동경기연락회의가 10일 경기도 오산시공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의 반전조실현행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지난 6일 단자군반입과 관련한 남조선미국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불과 4시간만에 끝났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학자들이 일본과 과거청산과 평화에 요구하여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들어라! 아베는 〈한〉으로 식민주의,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군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식민지 지배사죄없는 제무장을 중단하라.》, 《침략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일본수상의 담화내용이 적혀있는 대형프랑카드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거운을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들어라! 아베는 〈한〉으로 식민주의,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군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식민지 지배사죄없는 제무장을 중단하라.》, 《침략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일본수상의 담화내용이 적혀있는 대형프랑카드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거운을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들어라! 아베는 〈한〉으로 식민주의,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군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식민지 지배사죄없는 제무장을 중단하라.》, 《침략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일본수상의 담화내용이 적혀있는 대형프랑카드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거운을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대한불교청년회》가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아베는 들어라! 아베는 〈한〉으로 식민주의, 침략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강제징용, 군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식민지 지배사죄없는 제무장을 중단하라.》, 《침략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야망에 사로잡힌 일본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일본수상의 담화내용이 적혀있는 대형프랑카드에 신발을 던지면서 항거운을 고조시켰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교압박인민들에게 민족해방의 앞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변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11일 로씨야에서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모임장소에 전시되어있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장년 70대, 조선해방 70대경축 로씨야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재야, 베르보프를 비롯한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보조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일제에 반대하는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조국해방을 이룩한데 대하여 열거하고 조선해방 70년을 로즈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명절로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세계우의를 확대하는 공동투쟁을 위하여 마련되고 공고발전된 불결의 친선이라고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셔 조국인민은 세계우의를 확대하는 불결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신심과 락판에 넘쳐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씨야에 있는 조선의 벗들은 친선적인 조선에서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 인디아, 에티오피아에서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파담피, 도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10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배두산선세위원들의 업적과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마시형성사》, 《승도총독소년단야영소》, 《지옥수 없는 일본의 죄악》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대중이 참가하였다.

파키스탄선세위원회 카라치부서 서기장 자베드 안사리는 보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숭고한 영도를 이끌어준 김정은동지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숭고히 경배하며 조국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조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지명도하시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셨다.

주석께서는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항쟁 나라와 인민을 위한 길을 걸으시며 조국인민의 혁명투쟁사와 세계정진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다.

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김일 일 각하에 의 하여 빛나게 계승되었으며 오늘은

그이의 고귀한 업적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이러 토론자들은 오늘 조선인민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영도밑에 강성국가건설에서 전면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 도 세계를 경탄시킬 위대한 번혁을 일으킬것이며 사회주의의 핵무인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디아 김일일로작연구회 위원장 예스. 피. 파타크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우리는 머지않아 조선해방 70년을 맞이하게 된다.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나라를 찾이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1945년 8월 15일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셨다.

그이께서는 세계(세계)를 자랑하던 일제를 타승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었으며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셨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시고 김일일각하에 의하여 강화발전된 사회주의조선은 자기의 불멸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조선인민의 최고영도자 김정은각하의 영도밑에 지금 조선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계기에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자유투쟁을 위한 배후민족독립운동 위원장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배후위원회 서기장 예스투르도 마르페스다 베레스가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8월 15일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7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인민뿐 아니라 배후와 세계의 진보적인인민 모두가 이날을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경사스러운 명절로 함께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전제 조선인민을 일제를 쳐부수기 위한 항일투쟁에 힘있게 불어넣으시며 조국인민의 항일투쟁을 승리로 조지명도하시어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셨다.

우리는 조선해방 70돐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영도밑에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의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의 당과 군대, 인민의 투쟁에 다시한번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

본사기자

베를린에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20여개의 나라와 지역이 있는 우리 행성이 저들에게 복종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오만한 사고방식이 또 하나의 광대국을 연출하였다. 미국의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의 녀신상》에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말하는 로동도구들이 속살거리는 사회, 수많은 근로자들이 현대판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열거한 미국무성의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국제사회의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는 데 있다. 저에 이커정부의 성명을 발표하여 자국에서 《인신매매》행위가 성행하고있다고 비난한것은 확당무게 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핵담과 알레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광범한 출판물들은 보고서가 미국식기준에 준하여 다른 나라 정부들을 취급한것으로 억측과 날조로 일관되었다고 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강요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미국이 괴물은 손으로 인권문제를 가지지 남에게 이래저래라 할 처지가 못된다 고 강하게 야유조소하고있다. 서방보도계도 로씨야, 벨라루시, 수리아, 이란, 타이, 베네수엘라, 적도기네 등 수많은 나라들을 문제시한 《인신매매보고서》는 권선징악으로 작성되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진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비정부기구인 《노예근절동맹》은 미국의 보고서는 철두철미 정치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뻐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날조하고 비방중상한 미국의 《인신매매보고서》가 국제사회의 강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반미열풍을 불어오겼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인신매매》에 대해 황실수설하는것조차 국제사회에 대한 우대고 모독이다. 미국은 인간살육의 피마두아에 세워진 나라로서 노예장사로 살해된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아르카의 《혹성》이아기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양키조종들이 감행한 치명적인 흑인노예사냥과 노예무역, 흑인들의 피땀을 밀기위로 하여 초아난 악마극국의 피비린 행적을 그대로 고발해 주었다.

현시기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대판노예살육의 본지조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는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통목되어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어린이들이 갖은 학대를 받으며 소년로동을 하고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녀성들의 실패는 더욱 한심하다. 《문명》과 《연영》을 지향하는 《자유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규탄하여

로르니아아체 인턴네트에 올 게재

주제사상연구 로르니아아체국 위원회 3일 인턴네트홈페이지에 《비밀적인 《유엔군사령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경위부러가 비밀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사측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도발한 미국은 당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여 《결의》를 조작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은 유엔안전보장理事회의 주요결정들은 상임이사국대표의 일치각결에 기초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당시 미국이 고인해낸 《결의》는 상임이사국인 이전 쉰번의 참가가 없이 결정된것이었다.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에 대하여서는 미국인들자체가 시인한바이다.

유엔 《유엔군사령부》와의 관계

1994년 6월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연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었다. 80년 인정하였으며 1998년 12월 코피 안난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사령부에 대해 《나의 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언급하였다.

더우기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때 대한 문제를 모독하지 말고 제로나 셋이여 할것이다.

도이힐란드단체 성명 발표

도이힐란드단체는 최근 미국이 인신매매문제를 거지고 우리 공화국을 도대시 켜고는 것과 관련하여 3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5년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선의 존엄을 모독하지 말고 제로나 셋이여 할것이다.

부주도의 합동군사행위를 규탄

미국이 인신매매문제를 거지고 우리 공화국을 도대시 켜고는 것과 관련하여 3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5년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선의 존엄을 모독하지 말고 제로나 셋이여 할것이다.

프랑스신문 미국의 죄행 폭